



민중화 성지에 몰려든 시위대 이집트 시위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민중화의 성지로 떠오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밤을 지새면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백만인 행진·총파업... 이집트 국가 마비

### 추가 개각 불구 시위 계속... 철도·무선전화 폐쇄

### 엘바라데이 "무바라크 며칠 내로 이집트 떠나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무장관과 재무장관 등을 교체하는 일부 개각을 발표했으나, 반정부 시위대는 1일 카이로에서 '백만인 행진·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집트 국민에게 민주화의 성지로 떠오르는 카이로 중심부 타흐리르 광장에는 지난 31일에도 이집트 국가를 부르며 "물러나라...우리는 무바라크의 퇴진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 수천 명이 모여들었으나, 군은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현지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지금까지 최소 125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집트 시민들은 부상당한 시위대의 치료를 위해 자신해서 헌혈에 나서고 있다.

◇추가 개각 발표도 역부족=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책으로 내각 해산을 천명한 지 이틀 만인 지난 31일 새 내각이 구성됐다.

이집트 국영 TV 보도에 따르면 강

경진임을 주도해 시위대의 표적이 돼 온 하비브 알-아틀리 내무장관이 물러나고, 경찰청장 출신인 마흐무드 와그디가 신임 내무장관에 임명됐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지난 주말 오마르 술레이만 정보국장을 부통령에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내각개편을 단행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0만인 행진 및 총파업 예고=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하는 반정부시위대는 1일 수도 카이로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인 '백만인 행진'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위 조직책 중 한 명인 에이드 모하메드는 AFP 통신에 "1일 백만인 행진을 벌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반정부시위대는 엘바라데이와 무슬림형제단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기로 했다. 엘바라데이는 CNN과의 회견에서 무바라크 대통령

을 며칠 내로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고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가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집트 정부는 '백만인 행진' 시위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이날 철도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고, 자국내 반정부 시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던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소속 기자 6명을 체포해 구금하고 카이로 지국을 폐쇄한 데 이어 '백만인 행진'을 앞두고 이집트내 무선전화 네트워크를 폐쇄할 계획이다.

◇열쇠 쥔 군 침묵=무바라크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열쇠를 쥔 군은 타흐리르 광장 주변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시위대의 광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이집트군은 현재까지 무바라크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퇴진을 원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시위대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압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집트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가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며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집트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와 관련, 무바라크 대통령이 오는 9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두 명의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명을 요구한 이들 관리는 미국은

## 美, 이집트 비상계엄 해제 요구

현재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통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허용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집트 사태와 관련, 27개국 외교장관 명의의 성명을 채택해 이집트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스라엘을 방문, 벤자민 네타나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이집트의 상황이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 석해균 선장 위험한 고비 넘긴 듯

### 패혈증·병발성 혈액응고 이상 호전 증세 보여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어 수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삼호주알리호 석해균(58) 선장이 패혈증과 DIC(병발성 혈액응고이상)에 차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 수술을 받고 나서 아주대의 로진의 집중치료를 받는 석 선장은 1일 오전 패혈증과 DIC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체 수치의 변화를 보였다.

전날 DIC 증세의 호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혈소판 수치가 10만(정상치 15만~40만)을 유지하고 혈압과 맥박, 체온도 정상에 근접한 석 선장의 몸은 밤 사이 정상 수치에 더 가까이 근접하고 있다.

또 흉부 X선 검사에서 나타난 약간의 폐부종(폐에 물이 고이는 현상)과 늑막삼출(폐 주변에 물이 고이는 현상)도 더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

석 선장의 활력 수치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진은 석 선장에게 투여하는 항생제 등 약품의 양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수술을 받느라 석 선장의 몸이 받았던 생체 스트레스도 가라앉고 있는 등 호전을 짐작할 수 있는 생체반응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노학래 아주대병원 홍보팀장은 "오늘이 석 선장 치료에 중대 고비가 되는 날이지만, 오전 상황으로 보서는 호전의 기미를 보이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일 수도 있어 의료진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은 오후 회진을 하고 나서 석 선장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가족 안정이 국가 핵심 가치돼야"

###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1일 "가족의 안정이 국가 핵심 가치가 돼야 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가족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가족간 결속이 느슨해지면서 가족 문제가 우리 사회 병리현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서 건강한 가족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해서 독거노인이 외롭게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과 관련, "불미스러운 일로 모금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염려됐는데 우려보다 낮게 모금됐고 아직도 온정의 손길이 살아있는 것 같다"며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

### 한국 어린이在美 입양 연 800명... 세계 4위

한국은 아직도 연간 800여명의 어린이를 미국에 입양시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 입양아가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0년 국제입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일 많은 3401명이 미국에 입양됐고,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2513명, 러시아 1082명 순이었다.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많은 863명을 입양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우크라이나(445명)와 대만(285명), 인도(243명), 콜롬비아(235명), 필리핀(214명) 등도 200명 이상을 미국에 입양시킨 국가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슈퍼 농산물' 생육 유전자 비밀 풀었다

### 건국대 임준 교수팀 다수확 품종 성장 호르몬 메커니즘 규명

국내 연구진이 '녹색혁명'을 이끈 다수확 품종 식물성 성장 호르몬의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규명, 다수확 품종의 대량생산 유지와 신 품종 개발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건국대 생명공학학 임준 교수팀은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지베렐린(gibberellin)이 세포 내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유전자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1일 밝혔

다.

미국 듀크대와 공동 연구로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과학 학술지인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 최신호(1월18일자)에 2편 동시 발표됐으며 같은 학술지의 2월호에도 연속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실험용 식물인 애기장대를 이용해 일명 녹색혁명 유전자로 알려진 'DELLA'와 이 유전자의 하위에 있는 식물특이적 전사조절인자 중 하나인 SCL3(S-

CARECROW-LIKE 3) 유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베렐린이 세포 내에서 항생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뿌리생장이 조절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유지된 지베렐린 신호전달 과정이 식물의 뿌리 생장 및 발달 과정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규명했다.

연구자에 따르면 다수확 신 품종 작물은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베렐린의 생합성 또는 신호전달경로에 이상이 생긴 변이체이다. /연합뉴스

손영호 박사의 로벤테라피 제품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샵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이런분께 권합니다!

- ✓ 오십견
- ✓ 엘보
- ✓ 관절염
- ✓ 디스크
- ✓ 여드름
- ✓ 간질·우울증
- ✓ CT, MRI 이상없는데 고통을 느끼시는 분
- ✓ 방문하는 고객님께 감기는 무료관리(1시간 후 추측 호파)

손영호 의학박사가 개발한 로벤테라피란? 여러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천연성분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생한 제3세대 아로마테라피입니다. 기존의 아로마테라피와는 효과와 용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로벤테라피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증상에 오일을 피부에 발라 10여분동안 마사지 하여 통증이나 각종 증상을 없애는 기적의 자연제품으로 현재 전국 많은 병원에서 사용중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속는셈치고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상담, 방문 환영 전화예약하시거나 디알 필요 없습니다)

본 오일을 피부에 발라 20분 마사지/놀랍고 기적적인 효과/확신이 안가신분/무료상담, 방문환영 처음엔 의심하던 고객님이 1회관리후 통증이 없어지는 탁월한 변화를 체험하신후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로벤케어의 모든 관리는 책임제입니다” 책임제란? 효과없을시 돈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개설문의 현황 모집지역 : 광주,전남북지역 소자본투자/안정된수익

\* 위의 질병들을 가장 빨리 관리함에 있어서 로벤은 이미 세계최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 신동아 9월호)

**닥터손 로벤케어 roben care 상무점**

TEL. 062)376-5557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7-3 라인대주 APT 정문앞 2층201호 (지하철 상무역 4번 출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층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홀(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워터니스센터
- 1F 프론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당실
- BF1 대연회장, 페백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서 옆) | www.hotelarthall.co.kr